

광산업진흥회, 해외 바이어 상담 성과 '톡톡'

융합조명 공급 등 6건 195만 달러 MOU

국내기업 해외시장 진출 확대 기반 조성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최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해외 14개국 60여명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2018년도 상반기 유망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4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이번 국내 수출상담회는 한국 광융합 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러시아(융합조명 공급), 인도네시아(가로등 및 집어등 공급), 카자흐스탄(융합조명 공급), 페루(융합조명 공급 및 현지 공장 설립) 등의 시장 진출을 위한 총 6건, 195만 달러 상당의

MOU가 체결돼 향후 국내 기업의 해당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번 행사는 그간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해외마케팅사업의 연장선으로, 지난 2017년 개최됐던 차세대 ICT융합 및 효율화 국제경쟁력 강화지원사업의 국제광융합엑스포&비즈니스플라자, 광주시에서 지원하여 개최하는 광주광산업로드쇼와 해외전시회 공동관 운영, 동남아 및 미주 무역사절단을 통해 추진해 온 상담실적을 실질적인 계약으로 성사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로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최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2018년도 상반기 유망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진행됐다.

더불어 세계 각국의 실적정보를 통해 구매력을 갖춘 신규 해외 바이어를 집중

적으로 유치해 국내 유관 기업과의 상담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 체계 활용을 통해 향후 국내 기업의 수출 판로를 확대한다

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조용진 상근부회장은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꾸준한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유망 해외 바이어를 꾸준히 발굴하고 있으며, 국내 수출상담회 초청과 사후 관리를 통해 국내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광산업진흥회는 향후 국내 광산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며, 3월 중 일본 LED Next Stage, 중국 Laser Photonics, 미국 OFC 2018, 독일 Lighting&Building 등에 총 50여개 국내 광산업체가 공동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2018년 1/4분기부터 본격적인 해외마케팅 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형동 기자

금감원,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금융감독원이 6일부터 4일간 2018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업무설명회는 중소서민금융과 은행, 보험, 공시·회계, 금융투자, 금융소비자 보호, IT·핀테크 등 총 7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금감원이 2018년도 감독·검사 방향 등 구체적인 업무계획과 금융감독·검사 제도 프로세스 혁신 방안 등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방식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금융협약을 주제로 선정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업무설명회에는 금융사와 금융협회 임직원, 학계·연구계 인사,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번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금융회사 등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철을 앞두고 5일부터 30일까지 '2018년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순회수리봉사는 농기계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며, 89개 시·군, 읍·면별로 순회한다.

5개 농기계 제조업체(대동공업, 국제종합, 동양물산, LS엠트론, 아세아텍)에서 수리기사 70명, 차량 41대를 동원해 40개 반으로 편성·실시된다.

농기계 점검 및 정비는 무상으로 실시하고 부품을 교체할 경우 부품값은 실비로 받으며, 현장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또는 제조업체에 인계해 수리한다.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 수리, 응급처치 방법,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한다.

농식품벤처지원특화센터 새 이름에 'A+센터'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의 새 이름을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A+센터'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특화센터는 농업 분야창업지원기관의 주요 사업을 창업자들에게 통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기관으로, 전국 권역별로 5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창업기업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간결한 명칭으로 변경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새 이름의 'A'는 '농업(Agriculture)', 지원(Aid), 선진(Advanced)을, '+'(plus)는 센터의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 등을 통해 새 명칭을 홍보하고 내달 현판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로또(796회)

당첨번호	1, 21, 26, 36, 40, 41	보너스 5
등위	당첨금액	
1등	2,763,490,340원	
2등	70,088,524원	
3등	1,678,331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	

연금복권(348회)

등위	당첨번호	
1등	5조	604503
	6조	697794
2등	5조	604502
	6조	697793
	6조	697795
3등	각조	296973
4등	각조	43214
5등	각조	855
6등	각조	07,49
7등	각조	2,5

2018년 (사)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 정기총회



농협전남지역본부와 (사)농가주부모임전남연합회는 최근 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농가주부모임 대의원 및 지역농협 담당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농가주부모임 전남연합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행복한 농촌! 여성농업인 힘으로..."

전남농협, 농가주부모임전남연합회 정기총회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대선)와 (사)농가주부모임전남연합회(회장 박민)는 최근 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농가주부모임 대의원 및 지역농협 담당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농가주부모임 전남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2017년 사업실적 보고 및 2018년 사업계획(안)을 의결하고, 지난해 지역 사회공헌과 봉사활동 우수조직으로 해남농협농가주부모임과 광양시연합회가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주요사업으로 ▲취약계층어르신 지원 ▲농촌다문화여성농업인 육성 ▲행복나눔이 도우미활동 ▲여성농업인 리더십교육 ▲도농교류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박대선 본부장은 "농가주부모임이 농촌에 활력소가 되고 지역사회와 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여성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면서 "전남농협도 여성농업인신장과 젊은 여성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한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협약식

에너지분야 임팩트투자 사업비 지원·경영 컨설팅

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김시호)은 최근 한전 아트센터에서 박권식 한전 상생협력본부장, 안광석 한전 상생협력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해외판로 확대 및 임팩트 투자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열매나눔재단과 한국사회투자에게 각각 1억 5,000만원과 2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협약식은 '해외판로 확대 지원 협약식'과 '에너지 분야 임팩트 투자 지원 협약식'으로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해외판로 확대 지원'은 국제 박람회 참석 및 수출 계약 추진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20개사의 해외 매출 확대와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행재단인 열매나눔재단을 통해 1억5,000만원 규모로 지원된다.

또 '임팩트 투자 지원'은 사회적기업 2개사의 에너지분야 소셜 프로젝트에 한전이 2억원을 투자하고, 한국사회투자에게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에너지분야 임팩트 투자 지원'



한국전력은 한전아트센터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해외판로 확대 및 임팩트 투자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한편, 한전은 클라우드 펀딩 지원으로 초기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창업기(크라우드 펀딩) - 성장기(해외판로 확대) - 성숙기(임팩트 투자)의 사업 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연간 40억 규모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30개사에 태양광발전소를 무상으로 건립해주고, 매년 발생하는 전력판매수익을 일차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립 기반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광주노동청, 근로기준법 등 준수 감독

외국인 고용 농공단지 등 대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5일부터 30일까지 광주·전남·전북 지역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농공단지, 농·수·축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농·수·축산업 분야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일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이를 악용한 최저임금 미지급, 농번기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적정

임금 미지급, 강제근로, 폭언(행), 차별,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김영미 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우리 지역 대표 산업인 농수축산업 분야에서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철저한 확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형동 기자

'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 출시

빅데이터 분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신한카드(대표이사 임영진)와 제휴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 소비특성에 맞춤형 카드혜택과 회원ID 기능을 부여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전용 제휴카드를 5일부터 신규 출시한다.

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는 기존에 존재하던 카드상품이 아닌 가입자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 선보이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로 업계 최고 수준의 혜택을 담아 구성했다.

카드혜택은 소상공인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할인점, 전자상거래, 이동통신, 전기요금 등 주요 사업성 경비에 대해 1~5%, 사업성 경비를 제외한 소비에 대해 0.15%의 현금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 적립과 함께 주유, 병·

의원, 교통 등 생활밀착형 소비에 대해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전월 이용실적이 따라 최대 월 5만5,000원의 포인트 적립 및 1만 5,000원의 할인을 통해 연간 최대 84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신한은행 사업자 대출 금리 우대, 부가세 신고 업무지원 등 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참조하면 되고, 카드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용 발급상담센터(02-840-1203),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유형동 기자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 방문·간담회

중기중앙회장과 13개 권역 지역회장은 경기도에 자리한 스마트공장 현장을 방문하고 스마트공장의 지역 확산에 대해 논의했다.

회장단들은 부천에 자리잡은 금형·사출물 전문제조업체인 일우정밀과 한국금형기술센터를 방문해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성과와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중소기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중기중앙회는 해외 스마트공장 생산현

장 방문과 더불어 관련 지원정책 현황 파악을 위한 정책연구단을 올해 파견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확산센터'를 통해 민간 주도의 업종·규모별 스마트공장 시범모델을 제시해 나가고, 정부의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단계 구축' 목표와 연계한 민간차원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스마트 환경개선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유형동 기자

대한항공, '사랑나눔 일일카페'

수익금 전액 '국제아동돌기연합' 전달

다.

미국, 스페인, 중국, 일본, 호주, 태국, 하와이, 괌 등 총 8개의 관광정이 참여하고 주요 랜드마크의 사진 및 영상 홍보를 통해 대한항공 취항지를 간접 체험

할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많은 참가 신청을 받은 '모즈향 룬 스프레이 만들기 교실'에서는 스프레이를 직접 만들어 향을 맡아 보는 한편 세계 곳곳의 다양한 장미 여행지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 여행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또 방문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광 없는 추억의 뽑기 게임 등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사랑나눔 일일카페'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시작해, SNS 회원들과 함께 하는 대한항공의 대표적인 나눔경영 활동으로 자리잡았다.

행사를 통한 수익금 전액은 '국제아

동돌기연합'에 전달해 기아 등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돕는 데 쓰이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재난현장 구호품 수송은 물론, 몽골·중국지역 식량사업 및 도서관 기증 사업을 지속하는 등 전 세계 소외계층을 위한 글로벌 나눔경영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유형동 기자

대한항공은 지난 3일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 1층 탭앤탭스에서 제 39회 사랑나눔 일일카페 행사를 가졌다.

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도심 속에서 떠나는 세계 여행, 사랑나눔 Gift Market'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이번 행사는 대한항공 주요 취항지의 관광정보를 접한 기념품을 바자회 형식으로 판매해 평소 여행에 관심이 많았던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